

공간 디자인에 있어 집합적 기억에 관한 알도 로시와 렘쿨하스의 비교 연구

- 라파엘 모네오의 비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arison with Aldo Rossi and Rem Koolhaas about Collective Memory in Space Design

- Focused on the Criticism of Rafael Moneo -

임종업* / Lim, Jong-Yup

이 홍** / Lee, H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ssibility about applying space design of urban theory focused on collective memory. Urban which is the final data of human's collective life has been recognized creative circumstances human collective is living. It can not think without collective from its motivation to problem of form as well as building as element which compose these cities.

It is to recognize essential attribute of construction in the collective that think architecture with urban, and It means that recognize actuality of architecture that can talk as the most collective product that represent human. There was discussion for collective and urban. But, this problem was proceeded to clear human knowledge of architecture mainly in other discipline, and even if speak as field of architecture, it could just pass confined meaning by referring at process that clear several main aspects of architecture as doing not pass over more than it. Problem of form that is ultimate aspect of architecture remained by different thing still doing not combine with collective architecture, and occasionally happened the case that make collective of architecture and relation of form overly incommodiously reducing form by a tool for diagram, shape, figuration in the aspect of collective. This research study concept for memory collective in the urban and collective of architecture, and choose urban planning methodology and their work by specific example between Aldo Rossi and Rem Koolhaas dealing with architecture and urban, and present possibility about space design of urban.

키워드 : 공간디자인, 집합적 기억, 알도 로시, 렘 쿨하스

Keywords : Space Design, Collective Memory, Aldo Rossi, Rem Koolhaa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집단생활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자료로 파악되는 도시는, 인간의 집단이 현재에도 살고 있는 창조된 환경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도시를 이루는 요소로서의 건축물 또한 그것의 동기에서 양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집단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건축을 도시와 함께 생각하는 것은 건축의 본질적 속성을 그 집단성에서 인식하려는

것이며,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가장 집단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도시를 건축의 현실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건축의 집단성과 도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건축의 인문학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건축의 분야라 하더라도 건축의 몇몇 주요 양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급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한정된 의미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의 궁극적 양상인 형태의 문제는 건축의 집단성과 명쾌히 결합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별개의 것으로 남아 있었으며, 간혹 형태를 집단적 양상의 도식화, 형상화, 상징화를 위한 도구로 축소함으로써 건축의 집단성과 형태의 관계를 지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나치게 응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인문학 분야 위주로 다루었던 건축의 집단성과 도시 내에서의 집합적 기억에 대한 개념을 건축적 입장에서 고찰해보고, 건축과 도시 두 분야를 같이 다루는 건축가들 중 알도 로시와 렘 쿨하스의 건축, 도시 설계 방법론과 그들의 작품을 구체적 사례로 선정하여 집합적 기억 개념의 공간디자인 적용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도시개념에 있어서, 알도 로시와 렘 쿨하스가 활동하는 현대 도시를 그 범위로 하며, 기억의 특성과 현대도시에서 집합적 기억의 개념을 고찰하고, 광장, 공원, 가로 등의 요소들이 도시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내부 공간의 상관성을 내부 공간이 가지는 도시적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건축가이자 건축 교육가, 그리고 비평가로서 활동 중인 라파엘 모네오의 저서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의 본문에서 다룬 알도 로시와 렘 쿨하스의 비평¹⁾과 본문에 제시된 작품의 공간 구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현대도시에서 집합적 기억의 개념

2.1. 기억의 특성

(1) 기억의 정의

심리학자들은 일찍이 기억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그 본질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억은 기존의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되살리는 정신 과정으로서, 대단히 복잡한 처리과정과 기제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은 모든 인지 과제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단순한 과제부터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거나 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어려운 과제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²⁾

기억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고 심리학적 의미로서 '사물이나 사상(事象)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흔히 기억이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 얻어낸 것들을 단순히 재생해내는 복사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

1)라파엘 모네오의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는 8명의 현대 건축가들에 대한 건축방법론과 작품에 대해 비평을 한 건축비평서이다. 이 책에서 알도 로시와 렘 쿨하스 건축, 도시에 관한 사상적 배경과 알도 로시의 작품에 대한 시기적 변화, 유형학, 도시의 건축 등과 렘 쿨하스의 기능-장소의 분리, 프로그램의 불명확성, 자유로운 단면 개념 등을 라파엘 모네오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을 볼 수 있다.

2)이정모외 12인,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p.139

그것을 학습자(경험자)의 기존 지식과 같은 내적 맥락이 따라 변형되어 암호화되고 저장된다.

(2) 기억의 단계

기억은 습득(acquisition), 보유(retention), 인출(retrieval)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습득이란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 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부호화(encoding)라고 한다. 보유는 정보가 저장되는 단계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보유는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며 때로는 습득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인 인출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된 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때로 인출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정보가 인출되는 경우가 많다.³⁾

2.2. 집합적 기억의 개념

(1) 개체와 집단의 영역

개인의 자유와 도시의 질서라는 두 가지 개념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개인의 권리와 지역 공동사회의 권리는 상호 대립한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로테르담의 건축가이자 계획가인 바케마⁴⁾는 "우리는 무명의 고객을 위해, 개체 존중의 입장에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네덜란드 근대건축국제회의(CIAM) 그룹인 오쁘바우⁵⁾와 함께 그는 1950년대 초 로테르담 근처의 알렉산더 폴더 지구를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다.⁶⁾ 30,000명의 주민들을 위한 이 거주지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개별적인 영역과 집단적인 영역간의 관계는 수세대 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해결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건축 형태에서 이 관계를 표현해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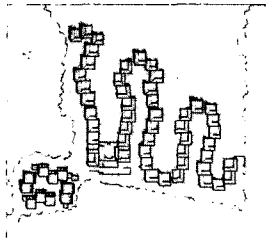
3)최한철, 기억의 재구성에 의한 건축 공간 인식의 불연속성, 서울대 석론, 2002, p.24

4)야곱 바케마는 CIAM 6차 회의(1947)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을 사회적 측면과 건축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Mumford, Eric.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The MIT Press, 2000, p.155

5)오쁘바우(OPBOUW)는, 건축가 크롬하우트(W.Kromhout)와 브린크만(M.Brinkman)이 1920년대 초부터 이미 로테르담에서 활동하고 있던 '건축가 및 예술가 그룹'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져, 후반기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오쁘바우는 '더 스타일'이나 '암스테르담과'처럼 처음부터 잡지의 발간을 매개로 하여 운동의 이념을 명확히 밝히고 출발하였다기보다는 다양한 성격을 갖는 로테르담 건축가들이 모여 장래의 건축적 경향이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니우어 바우원'이념이 차츰 표면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쁘바우는 초기와 다른 전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네덜란드 기능주의의 모체인 니우어 바우원의 주요한 실험적 활동 모체가 된다. 이 운동의 대표건축가로 아우드(J.J.P.Oud), 떼인(van Tijn), 에이스테렌(C.van Eesteren), 스태(H.Stam), 로흐렘(van Loghem) 등을 들 수 있다.

6)S.Giedion, Architecture, You and Me(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속에 설명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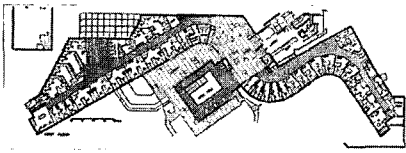
데 성공한 사람은 매우 드문데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존의 건물이 포함된다. 요른 웃존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1962년 덴마크의 프레덴스보그 주거단지 프로젝트에서 개체와 집단의 영역 관계를 표현했다.



<그림 1> 프레덴스보그 주택단지의 평면,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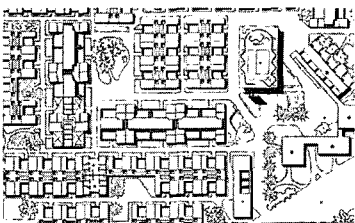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주택들은 자주 채택되어온 L자형 지상층 평면은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처리방식은 개별적인 방식인 공동벽의 길이를 최소로 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개별 주택의 대지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한 쪽에는 바깥마당을 두어 공동벽의 길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⁷⁾

개체와 집단의 영역의 연결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는 대학 기숙사이다. 대학 기숙사는 그 형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왔다. 단일 건물 안에 균일한 방을 집합시킨 것에서부터 도시 공간의 복잡한 구성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림 2> 알바알토의 MIT 기숙사 계획 평면

알토의 MIT 대학원생 기숙사 계획(1947-49)은 휘어진 벽돌 파사드를 가진 침실과 공부방 단위의 변화 있는 설계를 보여준다. 알토는 이 계획에서 계단실 배치 방식, 공간의 혼성, 변화가 가미된 침실의 용적과 형태, 배열 등의 수단을 통해 각 개인들에게 고유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림 3> J.L. 서트의 피바디 테라스 평면

J.L. 서트의 하버드 대학에 설계한 피바디 테라스란 이름의 기숙사는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3개의 고층 건물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숙사는 서로 다른 높이의 단일 저층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이에 다양한 형식의 열린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고층건물들과 저층건물들을 다리로 연결하면서 고층 건물들의 승강기는 고건물과 저층건물들의 매개역할을 하면서 이 두 건물 개체의 집단화를 가능하게 하였다.⁸⁾

(2) 집합적 기억의 정의

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느 한 공간에 정착하려 할 때, 그들은 공간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변형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복종하거나 적응하기도 한다. 집단은 자신이 건설한 영역 속에 갇히게 된다. 외부 환경의 이미지와 그 외부 환경과 집단의 안정된 관계의 이미지는 집단

자신이 형성하는 이념에서 근본적 역할을 획득한다.⁹⁾

도시 그 자체는 사람들의 기억이다. 기억이 상황과 장소에 관계되었듯이 도시는 집단 기억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과 그 도시의 거주민과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주된 이미지, 건축, 전경(landscape)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기억 안에 있거나 새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황이 생겨나고 그것은 도시 안에 형태로서 구성된다. 그러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즉 도시의 역사를 통해 그 도시에 형태를 부여하는 중요한 개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 집단 기억은 그 집단성에 의해 공간의 변형을 만들게 하는데, 이 변형이란 변화에 장애가 되는 물질적 요인에 의해 제약된 변형이다.

할바르크의 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개별성에 기초한 집합적인 공간이고, 공간과 시간의 관계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며, 도시에서의 건축은 행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합적 기억과 장소의 관계, 즉 집합적 기억으로써의 역사의 가치는 그것이 도시의 구조, 도시의 개체성, 그리고 도시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시에서 건축의 집단성은 건축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정당화하는 필수적 역할을 함으로써 형태를 시간적, 공간적, 정신적, 물질적 세계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건축의 집단성을 통해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건축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고 건축의 문제를 그 내부에서 파악할 수 있고, 건축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집합적 기억은 공간을 집단체의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에 관여한다. 그리고 그 변형과정은 언제나 그에 반발하는 실질적 여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집합적 기억은 복잡한 구조 전체를 이끄는 맥락이 되며, 도시적 형성물의 건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예술과 구분된다.

3. 현대도시개념과 집합적 기억의 공간디자인

3.1. 변화하는 도시 개념

(1) 도시와 국가

도시와 국가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은 기원전 3,000~4,000년 전에 세워진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도시 국가들은 사제의 지배하에 형성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 사회였다. 기원전 이오니아에서 폴리스(지역공동사회)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최초의 중심지인 아고라가 등장했다.

중세 시대의 '자유도시'는 소규모 수공업 산업 성장에 기반

7)S.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spacetime, pp.636-638

8)Ibid., pp.792-797

9)Aldo Rossi 지,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도서출판 동녘, 2003, p.260에서 알바슈의 저서인 집단기억(La Memoire collective) 인용

을 두고 있다. 도시 자치 정부는 식량을 생산하는 근처의 마을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발전을 하였다. 19세기에는 국제 시장을 위한 생산이 경제적 자립성 기반을 둔 도시의 개념을 약화시킨 시기이다.¹⁰⁾

(2) 유기체가 아닌 도시

역사를 통해 볼 때, 도시는 원래 자급자족적인 유기체였지만 지금은 자급자족적 유기체로서의 도시 개념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 이전 시대의 단순한 해결책은 현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복잡한 생활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직업의 차별화, 산업 조직, 교통의 발전 등은 기능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와 규모의 엄청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 변화, 확장되는 도시의 경계는 독립적인 단위들을 파괴시켰다.

도시 유기체의 구조는 더욱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대 도시로 올수록 번영과 근로자의 부족, 급속한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이유로 도시 내에서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급진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도시에 존재한다.

3.2. 지각이론과 공간의 집합적 기억

인간에게 있어서 '지각(perception)'은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인지와 현실이 만나는 곳이다. 지각에 대한 체계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과 타당성을 연구하는 철학의 영역부터 유래되었고,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지각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었다. 그리고 공간디자인자들은 지각심리학에 의해 연구된 지각현상을 근거로 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해왔다. 특히 생태심리학자인 제임스 깅슨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머릿속에서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보를 직접 자연스럽게 입수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¹¹⁾

인간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공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주로 시각에 의해서이다. 공간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슈탈트 지각이론에 기초한 공간조형 이론들은 주로 2차원의 기초 위에서 점, 선, 면들을 이용하여 형태패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제 환경 내에서 구축환경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순히 형태구성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일상세계 내에서 체험하는 흥미나 즐거움은 '움직이는 가운데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항상성(恒常性)을 지각'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흥미와 즐거움의 연속이 바로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며, 이를 통해 공간의 집합적 기억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합적 기억을 통한 공간 디자인 과정은 단순히 선이나 면을 이용한 형태구성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축물의 생태학적 역할이나 사용자의 행태적 측면, 나아가 상징적 의미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각에는 분명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이 내포되어 있다. 지각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은 환경에 내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인간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 지각에 대해 이해하려 할 때, 인간의 내적 과정들과 환경의 요소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 경험과 환경을 하나의 통합적인 단위로 검토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과정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공간의 집합적 기억인 것이다.

3.3. 건축공간에서 집합적 기억에 의한 경험 작용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하는 말이며, 철학적 의미로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을 뜻한다. 경험은 체험보다는 간접적, 이지적인 인식의 함축성을 지닌다. 경험의 성립에 대한 설명은 심리학, 대뇌생리학,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과학의 입장에서 내려진다. 또한 경험은 개개인의 기억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집합적 기억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험은 인식이나 지식의 한 요인이므로 예로부터 인식론의 근본개념이었다. 특히 근세이후,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이론이 발전하고, 인식론이 철학의 중심 과제가 되자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경험론'이라는 유력한 경향이 생겨났다.

공간의 경험은 공간이 제공되고 관찰자가 공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보고, 공간 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요소들에 의해 시각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런 시각과 감정의 변화는 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과학이나 철학의 논리적 사고가 경험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공간도 경험적 조건들이 바탕이 되어 공간의 본질과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기억, 이미지, 스키마(schema)¹²⁾ 등의 심적 표상(mental

12) 스키마는 인간의 인식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총체적인 사고 체계를 말한다. 즉 스키마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지게 되며 정보에 대한 반응이나 처리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각 개인은 고유한 사고 과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 체계의 고유성이 곧 스키마의 특성이다. 스키마는 인식주체인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식틀이다. The Blackwell Dictionary of Cognitive Psychology에서는 스키마에 대해서 '스키마는 개념이 구조화된 그룹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개념은 사건, 시나리오, 행동, 대상물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획득되는 일반적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10) S.Giedion, op. cit., pp.786-792

11)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점유성의 재해석과 그 적용, 중앙대 박문, 2004, pp.16-17

representations)은 인간이 환경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며 상호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합리적, 물리적, 이성적 사고에 근거하여 수동적으로 공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용자인 인간의 참여를 유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건축 공간에서 경험이 작용한다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내부 공간의 구성을 위해 건축적 기본 요소를 재구축하여 건축 공간을 디자인함을 의미한다.¹³⁾

3.4. 집합적 기억에 의한 현대도시공간과 내부 공간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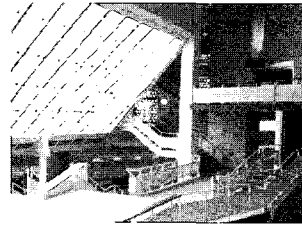
(1) 현대도시건축에서의 가로와 내부화

네트워크 기술은 고정된 영역으로서 장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경험적 차원의 장소를 만들어내며, 경험의 네트워크는 도시 가로의 흐름 위에 배열된다. 도시 가로의 장소성은 경험이 교차하며 소통을 생성하는 일시적 점유공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건축은 다양한 도시적 흐름과 경험이 집합적으로 교차하는 장소로서 도시적 구조로서 가로와 프로그램을 내부에 수용하고 도시와 연속하며 긴밀해진다. 기술과 사적인 공간을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든 자유로이 드나드는 현대적 개인의 일상은 건축과 도시가 전통적 내외부의 분리적 사고로 이해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건축이 내부에서 회피해온 경계와 유동성을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의 기억을 반영하듯, 건축과 도시도 현대인의 집합적 기억을 통해 변화된 내외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로의 내부화' 현상은 전통적으로 건축과 도시를 매개하는 공간인 '가로'를 통해 건축과 도시가 서로 침투하고 혼합되는 집합체의 양상을 보여준다.¹⁴⁾

(2) 도시공간요소와 극장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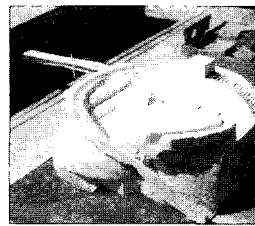
현대 극장에서 무대와 객석은 독립된 공간으로 표현되며, 그 외의 서비스 공간은 도시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후기 산업 자본주의 하에서 도시가 갖고 있던 역사성의 연속을 표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내에 골목길과 같은 도시 외부 공간을 이식하는 상대주의적 공간 형태의 유입으로 나타난다.¹⁵⁾

한스 셔라운의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 홀(1956-63)의 계획에서는 내부에서부터 건축물의 기능적 요구에 근거해 외부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일차적인 형태를 결정한 뒤, 다시 대지의 성격이나 사회적 요구조건, 외부 공간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내부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비규칙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 셔라운은 이 계획에서 오케스트라를 중심으



<그림 4> Concert Hall for Berlin Philharmonie Orchestra

로 관객들이 둘러싸는 형태의 평면을 구성한 뒤, 관객들의 기능적 동선을 고려해 외부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형태를 결정하였다. 포이어 부분은 많은 부분을 전시, 리셉션 등의 기능을 분리 배치하면서, 내부공간의 구성이 외부공간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배치된 기둥이나 계단은 공간을 풍부하게 해주며, 특히 도시 거리에서 보이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군중들의 집합적 기억의 모습을 계단에 표현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위계가 있는 두 공간을 연결하는 전환점으로 존재한다.



<그림 5> Ince Theatre

또 에릭 오웬 모스(Eric Owen Moss)가 계획한 인스 극장(Ince Theatre)은 3개의 구를 연결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극장 내부와 외부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극장 옥상은 도로 위로 나있는 보행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들 계단은 각 층을 연결하면서 극장을 돌면서 도시 속의 산책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6> 아트레온 - 거리와 객석 공간의 인식

거리와 객석과의 연속된 흐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객석은 관객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기억이 집단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객석이 외부 공간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거리와 객석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거리의 개념에 있어서 거리가 경계를 나누는 선적인 요소가 아니라 거리와 객석 두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전이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객석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4. 알도 로시와 렘 쿨하스의 집합적 기억에 의한 공간 개념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도시의 개념과 공간디자인의 분석에 있어 구체적 방법으로서 도시와 공간 디자인의 두 분야를 다루는 건축가인 알도 로시와 렘 쿨하스의 공간 디자인에 적용된 도시의 개념을 연구해보도록 한다.

4.1. 알도 로시의 집합적 기억에 의한 공간 개념

(1) 알도 로시의 철학적 개념

알도 로시는 두 가지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13)김예진·이정욱, 경험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통권57호, 2006.08, pp.138-140

14)정혜진, 현대 도시건축의 가로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p.93

15)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 뉴욕5 건축과 공간 운동, 2000, p.118

언어학적 구조주의와 계몽주의적 예술 이론이며, 둘째는 도시 지리학, 경제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다. 로시는 탈비평주의 해석 방법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되는 분석 방법을 서로 결합하여 유추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는 역사적 추이와 과정으로 인식했다. 결국 그는 구조주의적 방법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로시는 신험리주의자이다. 그는 “도시를 건축에 의한 도시로 합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에 걸쳐 형성된 축조로서의 건축”이라고 정의했다. 로시에게 축조는 단지 도시 건물들의 물리적 구조와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축조’라는 것은 합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이성애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로시는 “건축은 도시의 처음 시작과 함께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은 문명의 형성에 깊게 뿌리 박혀있는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공물이다.”라고 강조했다. 로시는 이성적인 건축의 축조가 어떻게 표현되는 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즉 건물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분류했다.

로시에게 도시는 집합적 기억에 의한 사회적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있는 물리적 형태이며 그렇게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얻어낸 유형들은 건축설계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도시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그 속에서 한 단편을 선택하고, 그 단편의 의미를 확장시켜가는 조작 과정으로 - 원래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 단편 자체의 의미, 새 맥락에서의 의미 - 해석하기 때문이다.¹⁶⁾ 그러므로 도시는 집합적 기억에 의한 유형 분류의 원자료들을 제시해주는 보고이며, 그렇게 얻어낸 집합적 기억의 유형들을 재구성하고 변형시키는 것이 건축가가 설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로시에게서의 건축 설계란 집합적 기억이 생성되어있는 도시의 단편을 분석하여, 선택하고 해체한 후, 재구성하는 작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은 단순히 도시 공간의 분석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도시적 질서를 규정하고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것이다.¹⁷⁾

(2) 작품고찰을 통한 알도 로시의 집합적 기억에 의한 공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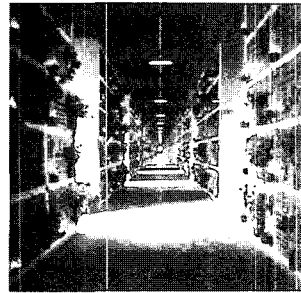
① 산 카탈도 공동묘지(1971-0984)



<그림 7> 산 카탈도 공동묘지의 배치

모데나의 공동묘지는 코스타(Costa)가 설계한 신고전주의의 오래된 묘지의 확장을 주제로 한 건축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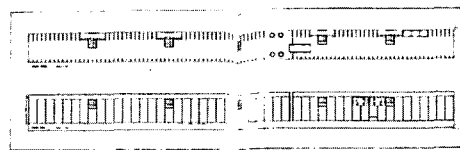
배치는 기존 공동묘지의 신고전주의적 배치와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 신고전주의 형태를 지닌 중정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가지 기본 건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형태들은 공공건축의 역사적 연속성, 역사적 유형과의 유사성에 의한 고전성과 토착성을 감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로시는 역사적이고 집합적인 기억과 도시의 이미지를 영속화한다.



<그림 8> 산 카탈도 공동묘지의 내부

산 카탈도 공동묘지의 건축 공간은 납골당이라는 기능적 역할보다는 공간들의 상징성이 강조되어 있다. 중정 내부에는 묘지의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납골당과 수직, 수평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납골당, 직육면체의 납골당이 중정의 대칭적 배치를 따르면서 배치되어 있다. 묘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직육면체의 납골당을 인식하게 된다. 이 납골당을 시작으로 하여 중앙의 납골당으로 연결되고 원추형의 납골당을 끝으로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갈라라테제 집합주거(1969-1973)



<그림 9> 갈라라테제 집합주거의 평면

로시는 갈라라테제 집합주거에서의 다의적인 기둥 위에 존재하는 이미

지화된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집합주택은 길이 182m, 폭 12m의 직육면체 건축물로, 1층은 필로티의 기능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 포르티코(portico)의 이미지를 가진다. 1층의 기둥은 원형 기둥, 직육면체 기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기둥 간의 간격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¹⁸⁾ 2층의 매스는 단순한 장방형이며,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개구부는 창과 발코니 등이다. 이 창들은 단순히 환기와 빛의 유입 등의 기능적인 목적 이외에 도시의 이미지를 건축물의 외부에서 건축적으로 재현한다. 또한 공간 내부에서는 또 다른 도시의 이미지를 건축화하고 있다. 182m에 이르는 긴 편복도에서 각각의 세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도



<그림 10> 갈라라테제 집합주거의 포르티코

시의 가로와 주택단지를 연상하게 한다.

이 집합주거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공간이 가진 요소들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나 모방은 아니다. 1층의 포르티코는

16)Anthony Vidler,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 Reader, Princeton Press, 1988, p.16

17)김의용, 이탈리아 신험리주의 건축의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5호, 통권211호, 2006.05

18)Braghieri, Gianni, "Aldo Rossi, Works and Projects," p.42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즉 잠재적인 집합적 기억들로 이루어진 단편들의 기동과 벽체로 2층을 지지하고 있으며, 2층의 주거단위는 도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즉 로시는 이 건축물에서 단편이 표상하는 집합적 기억과 역사가 도시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간적으로 보여준다.

4.2. 렘 쿨하스의 집합적 기억에 의한 공간 개념

(1) 렘 쿨하스의 철학적 개념

렘 쿨하스는 언어학적 구조주의와 해체주의(Deconstruction)를 철학적인 배경으로 하여 건축물을 해석했다. 그는 모든 생각은 말(speech)에서 유추된 언어에 의존한다는 스위스 태생의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¹⁹⁾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언어에 우리의 사고가 반영되나, 그것을 종이 위에 글로 쓰면, 단어를 볼 수 있으나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생각에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면 위의 단어는 사고를 불투명하게 반영하며, 숫자, 도식, 그림, 건물들 모두가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고를 불투명하게 반영한다. 이런 개념으로 쿨하스는 도시에 작품을 포함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그는 해체주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개체와 개체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와 같이 차이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동일성의 다름(difference)으로 사용하였다.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끝없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건축가와 일반 대중은 능동적인 관계이며 서로의 의미가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기 때문에, 건축은 체계가 없는 도시 환경 내에서 하나의 텍스트²⁰⁾로써 집합되는 기억들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건축 구축물은 각기 역동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쿨하스의 의도는 도시의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를 읽을 수 있는 환상적인 이미지나 구축성을 가진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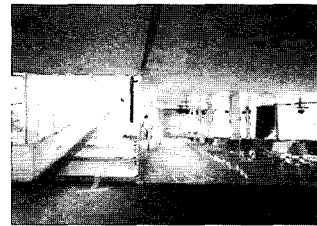
쿨하스는 도시의 건축과 도시의 활동 사이에 불연속성을 지지한다. 각 구조와 건축은 서로 연관이 없어, 도시의 물리적 요소들과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서로 대응하지 않는다. 의미

(signified)는 자기 현전(self-presence)으로써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말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을 정의하고자 할 때마다 일어나는 언어적 대체(substitutions)와 환치(displacements)가 연속해서 일어나 의미가 끝없이 연기되기 때문에 역사와 형이상학은 연속된 것이 아닌 불연속적인 것으로써 이해된다. 렘 쿨하스는 이런 불연속성과 도시에서 나타나는 밀집의 문화들이 이루어내는 또하나의 기억의 집합성을 그의 저서 '광기의 뉴욕'이나 'S,M,L,XL' 등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중요시했던 알도 로시의 집합적 기억과 대조되는 사고지만, 렘 쿨하스만의 집합적 기억인 것이다.

(2) 작품 고찰을 통한 렘 쿨하스의 집합적 기억에 의한 공간 개념

① 쿤스트할(1987-1992)

렘 쿨하스의 쿤스트할에서는 20세기를 밀집의 문화로 이해하고 도시를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로 이루어진 무질서한 세계로 인식하고 이러한 불안정성을 수용하는 그의 사고를 공간으로 표현한 건축물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기억을 이루고 이런 기억들이 모여 집합적 기억이 형성된다. 이런 집합적 기억을 이루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쿤스트할에서 공간의 성격과 공간 요소들의 배치에 의해 나타난다.



쿨하스는 쿤스트할에서 3개의 전시관이 내부와 외부 공간의 연계 방법과 방향에 따라 무성격의 독자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각각 다른 공간적 성격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감 창출을 위해 공간감을 이루는 비례, 외부로의 개방, 빛의 정도, 재료 및 색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시실로의 연결통로의 구분에 있어서 강당의 일부를 전시공간의 연결통로로 사용함으로써 강당의 영역과 통로의 영역적 구분을 불명확하게 처리하고, 연속된 통로로서 공간을 구성하고 동서의 기존 도로와 남북의 공공램프로 외부의 교통이 내부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진다.



<그림 12> 쿤스트할 내부의 연속적 흐름

쿨하스는 도시에서 흐름을 통제하여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어 준 것처럼 건축에서 또한 흐름이 원활한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을 통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쿤스트할이 미로와 같은 특성

19)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차원을 지닌다. 랑그는 언어 능력이고 빠롤은 실제 음성 행위를 뜻한다. 랑그는 빠롤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언어는 하나의 이름에 하나의 대상을 연결짓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음성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머리 속에 소리 사전과 개념 사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말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두 개의 사전을 결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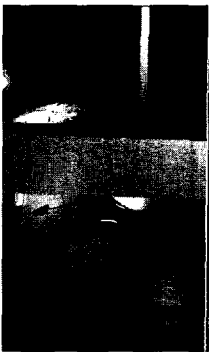
20) 텍스트란 고정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기표들의 짜임이다. 즉, 텍스트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기표들의 다각적이고 물질적, 감각적인 성격에 의해 무한한 의미생산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텍스트는 근원적이지 않은 여러 다양한 글쓰기들이 서로 결합하며 반박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이 된다.

21) 조승구, 도시 형태와 현대 건축의 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4권 1호(통권111호), 1998, p.55

을 보인다.

② 넥서스 월드(1991)

1991년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넥서스 월드 집합 주거 개발은 건축 형상의 크고 다양하게 선정된 복합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쿨하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우징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은 24호의 개인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호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2호씩 모여 두 개의 블록을 형성한다. 블록 내부의 진입을 위해 외벽은 들어 올려 졌으며, 블록 내의 주차장을 반지하로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위의 데크는 램프화되었다. 램프로 이루어진 중앙홀은 각 주호로의 진입공간이 된다. 각 주호와의 집합이 그리드 체계에 맞춰 매우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으나, 각 주호의 내부에는 사적인중정이 수직으로 관통하여 각 주호마다 빛과 허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정에서 3층까지 이어주는 보이드 공간은 수직적 공간의 통합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각 주호의 거주자가 내부 공간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통합된 공간임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런 보이드 공간은 도미노의 본질적 공간의 문제인 수직적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건축적 방식이다.²²⁾



<그림 13> 넥서스 월드 집합주거의 내부

넥서스 월드에서 주어진 길은 집의 중정이다. 중심으로서의 부지의 조건은 다른 것들과의 접근에 있어서, 안뜰의 2층에 거주하기 알맞게 되어있다. 요구된 조건들은 환기, 오프닝, 땅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을 포함한다. 이는 램 쿨하스의 도시 개념인 밀집과 독립이 동시에 배치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쿨하스는 일본의 혼잡을 밀집으로서 받아들이고 동시에 중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공간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였다.

4.3. 알도 로시와 램쿨하스 집합적 기억에 의한 공간개념의 비교분석

알도 로시의 집합적 기억에 의한 단편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형태로 유추되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로시는 그의 공간 디자인 방법에서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단편들의 사용과 그 조합을 보여준다. 이는 공간의 의미를 재생산해가는 건축의 자율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며, 사건과 장소로서의 의미를 공간에 부여하고 있다. 로시에게 있어서 건축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화된 공간이다. 로시의 사건은 단순한 발생이 아니라 그의 단편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단편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한편 램 쿨하스는 도시를 밀집의 문화와 그 때문에 발생하

22)김경훈, 램쿨하스의 '거대함'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p.55

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으로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불안정성이 밀집된 집합의 기억들로 간주한다. 외부 환경을 제어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혼돈스러운 도시 상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추구하려는 공간을 구축한다. 그는 알도 로시와 대조적으로 기존의 축척, 구성, 내외부의 관계, 주변 공간들과의 문맥 등의 건축적 공간 구축 원리를 무시하고 그의 건축적 의도와 프로그램적 불명확성의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체주의적 공간을 구축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알도 로시와 램쿨하스 공간개념의 비교 분석

	작 품	도시해석개념	집합적 기억의 공간디자인개념
알도 로시	산카탈도 공동모지	맥락적 배치 자율적 도시 도시적 일상성과 건축적 형태	집합적 기억 : 역사적 연속성 - 역사적 기억 중정형 배치
	갈라라테제 집합주거	도시적 가로 형태 회랑의 변형 도시적 일상성	집합적 기억 : 원형기둥 - Bar type의 근대 주거 유형
램 쿨하스	쿤스트할	밀집의 문화 복잡하고 무질서한 세계에 의한 불안정성	집합적 기억 : 공간 계획의 모호성 - 연속된 통로
	넥서스월드 집합주거	밀집과 독립	밀집(집합적)공간 : 보이드 공간 (수직공간의 통합 요소) - 램프 독립공간 중정

5. 결론

도시 내에서 건축 구축물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실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된 도시 공간과 형태는 기능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사회적 상태나 주체성, 힘, 지역적, 미적, 형상학적 매개체 등을 통해 구축된 사회적 공간의 다중성이 도시 공간과 건축물 내부 공간의 구성에 적용되어 왔다. 알도 로시와 램 쿨하스는 이런 다중성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개념을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 적용시킨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다.

알도 로시는 도시를 건축 공간으로 고려한다. 로시가 말하는 건축의 공간이란 시각적인 도시의 이미지와 각기 다른 건축물들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도시의 구축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시간의 흐름과 같이 도시도 스스로 성장하며, 의식과 기억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건축의 공간은 그 자체가 도시이며 도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기억(Collective Memory)인 것이다.

렘 쿨하스는 현대의 도시를 역사나 특별한 건축 양식과는 무관한, 문맥이 없는 도시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쿨하스에게 도시는 혼잡하고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군집되어 기억되는 집합적 기억인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개념이 공간 구축에 있어서도 역사성, 주변과의 문맥, 내외부의 관계 등의 건축적 공간 구축 원리를 무시하고 그의 건축적 의도와 프로그램적 불명확성의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체주의적 공간을 구축한다.

본고에서 다룬 건축의 집단성과 도시의 개념, 그리고 공간 디자인은 인문학적 성격으로서의 건축의 집단성과 도시에 대한 논의를 건축적인 방법으로서, 또한 내부 공간 디자인에 적용하는 공간 설계 방법의 하나로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는 건축의 궁극적 양상인 형태의 문체를 도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공간 구축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집합적 기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도시 개념들이 건축물 내부 공간 디자인에 적용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Rafael Moneo, *Theoretical Anxiety*, The MIT Press, 2004
2. Aldo Rossi 저,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 도서출판 동녘, 2003
3. 이정모 외 12인,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4. S.Giedion 저, 김경준 역, *space, time and architecture, spacetime*, 1998
5. S.Giedion, *Architecture, You and M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6.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 뉴욕5 건축과 공간 운동*, 2000
7.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8. Anthony Vidler, *The Third Typology, Opposition Reader*, Princeton Press, 1988
9. Mumford, Eric. *The CIAM Discourse on Urbanism, 1928-1960*, The MIT Press, 2000
10. Braghieri, Gianni, "Aldo Rossi, Works and Projects"
11. 김경훈, *렘쿨하스의 '거대함'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7
12.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점유성의 재해석과 그 적용*, 중앙대 박론, 2004
13. 김예진·이정옥, *경험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2006.08
14. 김의용, *이탈리아 신헌리주의 건축의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5호, 2006.05
15. 정혜진, *현대 도시건축의 가로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16. 조승구, *도시 형태와 현대 건축의 관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1호, 1998
17. 최한철, *기억의 재구성에 의한 건축 공간 인식의 불연속성*, 서울대 석사논문, 2002

<접수 : 2006. 10. 31>